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동행'

익산시, 자립정착금 월 30만원으로 인상·일체형 임대아파트 공급 등

익산시가 사회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소년들의 안정적 사회정착과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다각적 측면의 지원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임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매해 익산 10여명을 포함해 2,000여명이 전국적으로 보호종료되고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그간 간담화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해 꾸준히 소통했다. 이에 필요성이 높은 생활비, 주거공간, 학업생활 지원 등을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자립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

먼저,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로 익산사랑 자립정착금을 확대 지급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호종료 후 5년간 매월 50만 원(2023년 40만 원에서 2024년 10만 원 인상)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와는 별개로 2022년부터 익산에 주소를 둔 자립준비청년에게 익산사랑 자립정착금을 매월 20만 원 추가로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고물가 등 생활여건 변화를 반영해 매월 3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현재 익산 자립준비청년은 50여명으로 타지역 거주 자립준비청년들보다 월부터 신청 받아 '보증금 4만 원 월 임대료 2만 원'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주 가능 주거지를 확보하는 데로 남상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살림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자립전담기관이 함께 돕고 종가집(대표 김경일)이 300만 원, 국제로타리 3670지구 익산지역협의회(회장 진영섭)가 300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익산시는 29일 원광대·원광보건대와 함께 지역상생발전과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사회정착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은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발 벗고 나서서 대학을 진학하는 자립준비청년의 학업적 성취 등 원활한 대학 생활을 위해 체결됐다.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에 진학한 지역 자립준비청년은 등록금, 기숙사 우선 배정, 기숙사비 지원, 국가근로장학생 우선 선발, 취업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자립준비청년이 온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사회 전체 시스템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부의 마음으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동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군산시는 2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4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용자에게 이용권(바우처)를 지급해 희망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이다.

군산시는 전북도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모집하는 16개 사업은 문제행동 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정서발달지원, 노인맞춤형운동(수중마루), 장애인보조기기렌탈, 시각장애인안버우처, 정신건강토탈케어, 청소년비전형

성지원, 아동청소년취업형성, 스포츠활동건강관리, 노인문화여가토달, 청소년재활승마지원, 글로발마인드형성, 성인심리지원, 노인맞춤형주거관리, 전북청년농촌치유프로그램 사업으로 총 1,000여 명을 모집한다.

신청에 앞서 서비스 신청기준 등 정확한 안내를 위해 27개 읍면동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사업별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배속진 경로장애인과장은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 실시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 제정

환경봉 군산시의원, 상임위 원안가결

군산시의회 환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이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65세 이상 인구가 5만7,042명(2023.12월 기준 / 전체 인구 대비 21.9%)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군산시 노인들이 '어르신'으로서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교육·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어르신 활동 지원 사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어르신 활동 지원 사업 시행 등을 규정한다.

환경봉 의원은 "이제 어르신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젊은 날의 경험과 지혜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신노년으로서 주체적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지원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5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 시동

익산시·푸드테크협의회·서울대 푸드테크센터, 상생협력... 첨단 식품 기술 전문가 특강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미래 신산업인 푸드테크산업 선점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시는 29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한국푸드테크협의회(회장 이기원), 서울대학교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푸드테크센터(센터장 이기원)와 익산시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푸드테크산업 확대와 육성·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 2017~2020년까지 연평균 38%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2020년 기준 전체 식품산업서 10.7%(5,542억 달러, 한화 약 685조 원)를 차지하고 있다.

협약에는 익산시와 한국푸드테크협의회, 서울대 푸드테크센터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푸드테크산업 기반 조

성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 추진, 교육·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기업협력 네트워크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협약에 이어 디지털 시대 식품산업의 변화와 대응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향후 식품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민국 : 세계 푸드테크산업 주도 전략'이란 주제로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이기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장은 푸드테크에 대한 설명과 세계 식품산업의 동향 국내·외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설 명절 맞이 불법쓰레기 집중청소 추진

군산시는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불법쓰레기 집중청소 기간을 추진한다.

민족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긴 연휴기간 동안 우리 시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가로변, 이면도로 등 집중청소를 추진한다.

특히, 고군산 도서지역, 산업단지 및 근대역사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주요관광지에 적치되어있는 방치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연휴가 끝난 뒤에도 명절 기간에 발생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시내 곳곳에 서 미무리 대청소 등을 시행할 예정이 다.

아울러 서해환경은 환경미화원 240여 명을 참여시켜 그동안 잦은 민원으로 문제 되었던 오식도동 내 원물림집 지역의 방치쓰레기를 처리하여 도시미관 및 정주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박종길 자원순환과장은 "시민 모두가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께서도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하여 쓰레기 줄이기에 힘써줄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보건소, 동절기 비상방역체계 운영

군산시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다양한 호흡기 및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동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방역체계는 설 명절 연휴 군중모임 시 호흡기 및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대비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설 연휴를 중심으로 2월 18일까지 운영되며 유관기관과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집단발생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279명에서 올해 1월 둘째 주 360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도 최근 4주간 4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전라작물직불제 2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익산시가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시행하는 '전라작물 직불제' 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농지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면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직불금 수급 희망 농업인은 동계작물은 3월 31일, 하계작물은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전라작물 직불제는 논 이용률 제고, 소득 안정 등을 위해 논에 동계작물 또는 하계작물을 재배하면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계작물 밀, 보리, 조사료를 재배하면 50만 원/ha, 하계작물 논콩, 가루쌀은 200만 원/ha, 식용 옥수수 100만 원/ha, 하계 조사료는 430만 원/ha를 지급한다.

같은 필지에 동계작물 밀, 조사료와 하계작물 논콩, 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 원/ha를 추가 지급한다. 겨울철에 밀,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에 여름철 콩, 가루쌀 재배한 농기는 총 350만 원/ha의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